

# 주간 전남 농업

VOL. 237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6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고랭지 감자밭, 진딧물 방제 미루지 마세요!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차세대 미래 축산 인재 양성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무안군, 공공부문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전개  
**해외 농업정보** 일본의 스마트 농업이 한국 수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농촌 일손돕기 나서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 목차 및 요약

### 1. 주간 날씨정보 .....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6 ~ 19도, 최고기온 : 24 ~ 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 ~ 7mm)과 적겠음

### 2. 농산물 관측정보 ..... 6

- ▶ 토마토 가격동향 및 출하전망
- ▶ 방울토마토(대추형) 가격전망 및 출하전망
- ▶ 참외 가격전망 및 출하전망
- ▶ 수박 가격전망 및 출하전망
- ▶ 애호박 가격전망 및 출하전망
- ▶ 오이 가격전망 및 출하전망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7

- ▶ 고랭지 감자밭, 진딧물 방제 미루지 마세요!
- ▶ 육쪽마늘 ‘홍산’, 전국 재배 가능해요
- ▶ 고추 바이러스 확산 방지는 ‘총채벌레’ 방제부터
- ▶ 수확한 맥류는 ‘15℃, 습도 65% 이하’로 보관
- ▶ 수확 빠른 국산 사과 ‘아리수’ 품질 높이려면?
- ▶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 과학적 입증
- ▶ 더울수록 가축도 먹이, 환경 관리 신경 써야
- ▶ 약용작물 ‘백출’, 장마철 세균썩음병·역병 주의
- ▶ 농가 일등 일꾼 ‘수정벌’을 지켜주세요
- ▶ “조·기장도 기계로 심으세요”

####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 29

-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농촌 일손돕기 나서
- ▶ 전남농기원, 차세대 미래 축산 인재 양성
- ▶ 농축산업 재생에너지 도입해 수익 모델 개발
- ▶ 전남도-롯데슈퍼,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맞손
- ▶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 ▶ 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

##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32

- ▶ 무안군, 공공부문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전개
- ▶ 담양군, 고품질 딸기 수출 위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 ▶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
- ▶ 곡성군, 米에 味를 더해 쌀 소비 촉진
- ▶ 고흥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25개 품종 모내기 실시
- ▶ 보성군, ‘녹차미인 보성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12년 연속 선정
- ▶ 보성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시행
- ▶ 해남군, ‘새청무’벼 해남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 ▶ 무안군, 스마트팜 선도농가 적극 육성
- ▶ 장성군,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금이 적기’
- ▶ 진도군, 농업(국화)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진도군, 벼 밀파묘 소식재배 연시회 열어

## 7. 해외 농업정보 ..... 49

- ▶ 일본의 스마트 농업이 한국 수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10. 시카고 선물거래소)

## 8.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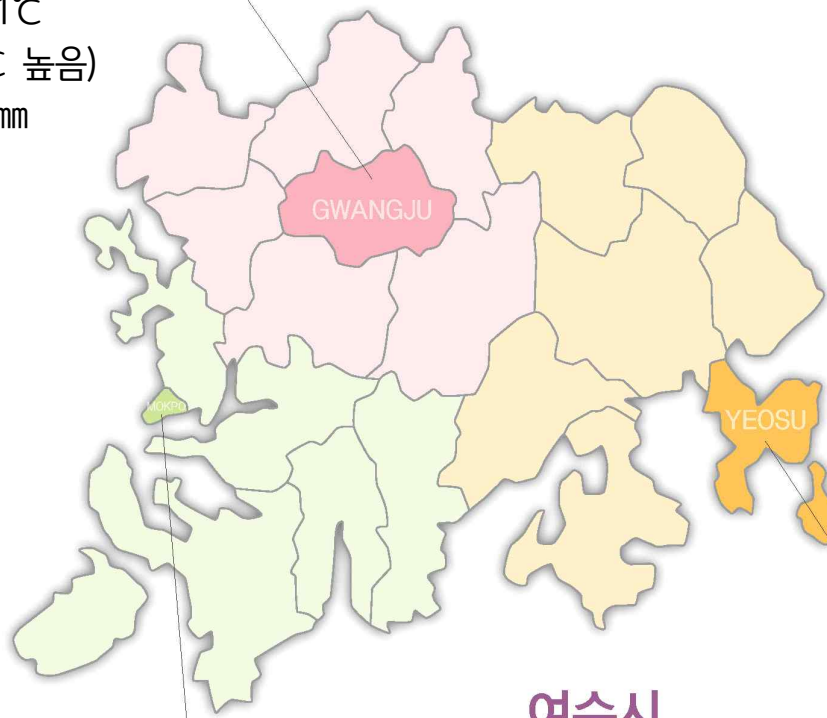
- ▶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 주간 날씨정보

##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3.4℃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28.7℃  
(평년대비 1.1℃ 높음)
- 최저기온 : 18.1℃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3.6mm



## 목포시

- 평균기온 : 21.7℃  
(평년대비 0.5℃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18.1℃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3.3mm

## 여주시

- 평균기온 : 21.9℃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25.0℃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18.9℃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4.9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마토 가격동향 및 출하전망

### 📍 가격동향 : 6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1,8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9천~1만 2천 원으로 전망된다.
- 6월 상순에는 전년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겠으나,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6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원·경기·호남지역은 신규 및 기존 농가의 시설면적이 확대되는데다, 원형 방울토마토에서의 작목 전환으로 출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단수는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강원 춘천에서는 봄철 야간기온 하락으로 숙기가 늦어져 수확이 지연되었던 물량이 6월 중순 이후 동시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충청지역은 병해충 발생률이 전년보다 적어 작황이 양호한 반면, 경기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날이 지속되면서 곰팡이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6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방울토마토(대추형)

###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 대비 강보합세 전망

- 6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나, 품질이 양호하고 소비대체재인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7,200원) 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3kg 상자에 6천~9천 원으로 전망된다.

###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6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호남지역은 신규 시설면적이 확대된데다, 금년 상반기 시세 상승으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도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단수는 기상이 양호(일조 시간 증가 등)하여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출하지인 충청·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병해충 발생률이 적어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6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외

###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참외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3,400원) 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천~2만 8천 원으로 전망된다.

###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9% 증가 전망

- 6월 참외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참외 정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5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년보다 출하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 6월 단수는 전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5~6월에는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생육이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6월 출하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9%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순별 출하 비중은 상순 24%, 중순 37%, 하순 39%로 상순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월 하순부터 시작된 화방교체가 6월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7월 출하면적은 정식면적이 감소한데다, 기상호조로 출하시기도 6월로 앞당겨지면서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6월 수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540원)보다 낮은 상품 1kg에 1,300~1,500원으로 전망된다.

###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 6월 수박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멜론, 양파, 무 등에서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6월 단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남 부여·논산의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생육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반면, 충북 음성과 전북 고창은 수정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 및 과 비대 불량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6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애호박

###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300원) 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7천~9천 원으로 전망된다.

###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6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 진주와 호남지역(구례, 광양)에서는 최근 지속된 가격 약세와 무름과 발생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강원과 충청지역에서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6월 단수는 바이러스 피해와 기상이 좋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일조량이 증가하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전남 구례에서는 총채벌레와 흰가루병 발생이 증가하여 수확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6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에도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많을 전망이다.



## 오이(취청)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6,5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1만 4천~1만 6천 원으로 예상된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6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 순천에서는 바이러스 피해가 있었던 전년과는 달리 6월까지 재배기간이 연장되겠으며, 충북 진천에서는 화훼 등에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을 전망이다.



## 오이(백다다기)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3,200원)보다 낮은 상품 100개에 1만 9천~2만 1천 원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 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단수는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하순 주야간 기온차가 커 6월 상순까지는 단수가 적겠으나,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강원지역 출하가 시작되면서 단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6. 10. 기준 / 단위: 원)

## 식량작물

##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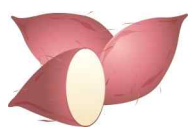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600	39,533	↑ 24.4

##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35kg	197,200	196,200	↑ 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4,200	181,400	154,533	↑ 27.6

##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kg	35,000	35,000	↓ 2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360	44,150	29,387	↑ 19.1

##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kg	26,000	27,200	↓ 1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660	31,250	30,433	↓ 14.6

## 채소류

##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kg	5,060	4,320	↑ 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4,925	5,303	↓ 4.6

##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8kg	5,100	5,100	↑ 1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62	4,375	4,206	↑ 21.3

##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0개	30,333	31,000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973	30,417	29,413	↑ 3.1

##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개	14,700	16,900	↑ 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280	13,450	12,440	↑ 18.2

## 채소류

###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60kg	1,137,200	1,137,200	↓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7,200	1,191,600	726,000	↑ 56.6

###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kg	37,600	34,600	↓ 14.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880	44,100	38,450	↓ 2.2

###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1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45,000	145,000	↓ 13.8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kg	11,200	12,200	↓ 2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620	14,700	15,153	↓ 26.1

###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0kg	31,400	30,600	↓ 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680	33,800	32,117	↓ 2.2

###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kg	1,560	1,680	↑ 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96	1,455	1,620	↓ 3.7

###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5kg	19,000	17,400	↓ 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240	20,400	19,000	0.0

###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개	15,500	15,60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100	16,050	14,258	↑ 8.7

###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5/27)	전년대비
10kg	19,600	18,600	↑ 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360	18,600	16,553	↑ 18.4

###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5/27)	전년대비
5kg	16,400	17,000	↑ 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560	14,550	14,137	↑ 16.0



## 과일류

###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kg	42,000	41,800	↑	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760	38,300	41,200	↑	1.9

###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5kg	54,400	53,400	↑	4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720	38,200	44,150	↑	23.2

###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kg	41,800	41,8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42,400	43,840	↓	4.7

## 축산물(소매가)

###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0g	8,039	8,115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67	8,123	7,276	↑	10.5

###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kg	5,220	5,219	↑	1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28	4,700	5,346	↓	2.4

## 특용작물

###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30kg	499,200	499,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9,200	498,000	525,267	↓	5.0

###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kg	11,600	11,800	↓	1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800	13,400	12,973	↓	10.6

###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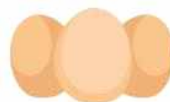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2kg	7,200	7,2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360	7,500	7,780	↓	7.5

###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00g	1,896	1,858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7	1,887	2,130	↓	11.0

###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30개	5,137	5,061	↑	2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17	4,132	5,700	↓	9.9

## 축산물(소매가)

###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0)	1주일전 (6/3)	전년대비	
1L	2,617	2,617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4	2,525	2,542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6. 10. 기준 / 단위 : 원)

###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13	5,518	5,608	↓ 0.1	↓ 1.7
거세	7,018	7,016	7,063	0.0	↓ 0.6

###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02	3,307	3,251	↓ 0.2	↑ 1.6
수	4,190	4,057	4,128	↑ 3.3	↑ 1.5

###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06	3,271	3,34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	↓ 1.3

###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24	447	29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45.7

###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6	384	45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5	↓ 14.2

###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00	1,080	94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4	↑ 6.2

###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44	850	59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7	↑ 41.6

###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1,86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7.7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 고랭지 감자밭, 진딧물 방제 미루지 마세요!

#### - 5월 평균 기온 높아 발생량 늘어... 증식 속도 빨라지기 전 제거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진딧물 발생이 늘면서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채종포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씨감자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께 집중적으로 나타나 피해를 입힌다.
-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관령에서 잡힌 진딧물은 533마리로, 최근 10년 간 평균치인 370마리보다 44% 많다.
- 진딧물은 기온이 높고 비가 적게 내릴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달 평균 기온은 20.8℃로, 평년보다 4℃가량 높았던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 6월 초까지 고랭지 씨감자 재배 농가는 약제 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진딧물은 잎 아랫면에서 즙을 빨아먹으며 살기 때문에 잎의 아랫면까지 충분한 양을 뿌려준다.
- 이때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약제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구본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6월 초 이후에는 진딧물의 증식 속도가 빨라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 방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육쪽마늘 '홍산', 전국 재배 가능해요

### - 4일 전북 부안서 현장 평가회... '재배 쉽고 병해충에 강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산 육쪽마늘 '홍산' 품종의 현장 평가회를 4일 전북 부안에서 연다.
- 이날은 각 시군에서 '홍산' 품종을 재배한 결과 발표와 농업인의 재배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마늘의 특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강의도 이어진다.
- '홍산'은 재래종과 품질이 비슷하며, 수량이 많고 자람새도 좋다.
- 국산 '홍산' 마늘은 끝부분이 연한 녹색을 띤다. 녹색 반점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1) 성분 때문이다. 중국산 마늘에는 나타나지 않아 쉽게 구분된다.
-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10아르(a)당 1,285kg으로 단양종보다 수량이 33% 많으며, 난지형일 때는 10a당 2,017~2,205kg으로 남도 품종보다 6~28% 많다.
- 농촌진흥청은 '홍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2017년 10개 지역, 2018년 7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했다.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올가을에는 7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 지난해 '홍산'을 시범 재배한 홍성의 한 농업인은 "비료를 잘 흡수하고 병해충에 강하며 기존 품종보다 재배가 쉬워 확대 재배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홍성군은 올해 전국 최대 규모로 '홍산'을 재배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허윤찬 과장은 "'홍산' 품종은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 기능성 성분이 우수해 국내 마늘 산업에서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국내 마늘은 한지형(의성, 단양, 서산 등)과 난지형(남해안과 제주 등)으로 구분되며, 난지형 마늘이 국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로 심는 '남도', '대서' 품종은 각각 중국, 스페인으로부터 도입돼 우리나라에 적응된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체하고자 꽃피는 야생 유전자원을 이용해2) 난지, 한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한 '홍산' 마늘을 개발해 보급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고추 바이러스 확산 방지는 ‘총채벌레’ 방제부터

### - 농촌진흥청, 발생농가 긴급방제... 발생 과원 주변 정밀예찰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에 감염된 고추 재배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칼라병' 이라고도 불리는데, 토마토와 고추를 비롯해 1,200여 종의 식물이 감염될 수 있다. 주로 총채벌레류를 통해 전염된다.
-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울긋불긋 무늬가 나타나 고르게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된 식물체를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다.
- 이때 총채벌레 등록 약제를 뿌려 밀도를 낮춘 후, 검정 비닐봉지 등으로 식물체 전체를 감싸서 다른 식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쑥 등 주변의 잡초가 기주식물(숙주)이 되므로 철저히 제거한다. 끈끈이 트랩 등을 이용해 발생 여부를 살펴야 하며, 발생 초에 등록 약제를 뿌려 확산을 막는다.
- 등록 약제는 작용 기작을 달리하는 세 종류의 약제를 4~5일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해 내성을 막는다.
- 아울러, 고랑 사이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땅 속에서 다 자란 벌레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방제 방법도 함께 사용한다.
- 최근에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이 출시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수확한 맥류는 '15℃, 습도 65% 이하'로 보관

### - 농촌진흥청, 곰팡이독소 피해 예방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보리와 밀, 귀리 등 맥류 수확철을 맞아 곰팡이독소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곰팡이독소는 농작물이 자라는 단계는 물론, 수확과 저장 중에도 생성된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 저장할 경우 곰팡이독소 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곰팡이독소에 감염된 맥류를 사람이나 가축이 먹게 되면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맥류는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하고, 거둔 즉시 말려야 한다.
- 이때 이삭의 수분 함량이 쌀보리와 겉보리는 14% 이하, 맥주보리는 13% 이하, 밀과 귀리는 12%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저장고는 온도 15℃ 이하, 습도 65% 이하가 좋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7월과 8월은 곰팡이와 해충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온·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류경열 유해생물팀장은 "곰팡이독소를 예방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고에 보관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수확 빠른 국산 사과 '아리수' 품질 높이려면?

### - 맛 · 색 좋아 인기... 6 · 7월 집중 관리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월과 7월 중점 관리로 사과 '아리수' 품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령을 소개했다.
- 사과 '아리수'는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2013년부터 보급한 품종으로, 지난해부터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 '아리수' 품종은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으며, 맛도 좋고 색이 붉게 잘 든다.
-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이나 갈색무늬병 등에 강해 약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갈변 현상이 적어 조각 과일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 올해처럼 이른 추석에 '아리수' 품종을 출하하려면 열매가 작을 때(유과기)부터 생리장해 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녹은 열매 표면의 거친 딱지 같은 흔적을 말한다. 5~7월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약제를 잘못 뿌린 경우,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나타난다. 동녹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제는 피하고, 알맞은 약제를 부드럽게 뿌려준다. 빨리 마르도록 비 온 뒤나 안개 낀 날은 피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사과 '아리수'가 올해 추석 선물용으로 자리매김해 인기 품종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 과학적 입증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인삼산업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이 건강기능식품의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인삼의 뼈 건강 기능성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학교병원이 3년간 공동 연구하고, 2년간 보완 연구 후 인체 적용 시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 먼저, 인체 적용 시험은 만 40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 90명을 30명씩 세 집단으로 12주간 진행했다. 대조 집단은 가짜 약(위약)을, 나머지 집단은 인삼 추출물을 각각 1일 1g, 3g씩 먹게 했다.
- 그 결과, 하루에 3g씩 먹은 집단은 위약 집단보다 골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는 11.6배, 칼슘 함량은 3배 높게 나타났다<sup>2)</sup>. 골관절염 지수 또한, 1일 3g씩 먹은 집단은 대조 집단보다 복용 전·후 지수의 변화치가 유의적으로 낮아 인삼이 골감소증에 의한 관절 통증, 경직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에 앞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도 인삼 추출물의 골다공증 개선 효과를 밝혔다. 실험은 112주령의 쥐에게 인삼 열수 추출물을 무게(kg)당 300mg을 8주간 먹이며 진행했다. 인삼 추출물을 먹은 쥐는 먹이지 않은 쥐보다 골밀도가 32% 높았고, 골형성 지표와 칼슘 함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 이번 연구로 인삼의 기능성에 '뼈 건강 개선'이 더해져 우리 인삼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 확대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더울수록 가축도 먹이, 환경 관리 신경 써야

### - 사료 덜 먹어 생산량 줄고 쉽게 지쳐... 기술서 · 현장 지원 도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가축과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우는 기온이 20℃ 이상이면 사료 먹는 양이 준다. 25℃ 이상에서 비육우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30℃ 이상이면 발육이 멈춘다.
- 배합사료를 새벽과 저녁에 주면 먹는 양을 늘릴 수 있다. 볏짚보다는 질 좋은 풀사료를 5cm로 짧게 잘라 저녁에 준다.
- 축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켜 체감 온도를 낮춘다.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젖소는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유 속 단백질이 0.2%~0.4% 줄어든다. 생산량도 10%~20% 떨어질 수 있다.
- 땀이나 침을 흘리면 칼륨과 나트륨, 비타민 등 광물질이 부족해지므로 평소보다 4%~7% 더 영양을 공급한다.
- 송풍팬과 안개 분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와 그늘막을 설치하면 소의 피부 온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 젖소는 물 먹는 양이 중요하다. 물통을 자주 청소해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도록 한다.
- 돼지는 땀샘이 퇴화해 몸 속 대사열을 내보내기 어려워 여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사료는 같은 양을 3~4회로 나눠주면 먹는 양을 10%~15% 늘릴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주고 먹이통도 깨끗하게 관리한다.
- 충분한 환기와 천장의 단열 보강이 필요하다. 지붕에 물을 뿌려 주는 것도 돼지우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 닭은 땀샘이 없어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에 이를 수 있어 잘 살펴야 한다.
- 풍속을 이용한 터널식 환기와 냉각판(쿨링패드), 자동 물뿌리개 설치로 닭장 내 기온을 낮출 수 있다.
- 사육 밀도와 시원한 물 공급, 수송 밀도, 운송 시간 등에 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가축별 폭염 대비 관리 방법을 담은 기술서와 홍보 책자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9월까지 현장 지원도 나선다."라고 말했다.
-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63-238-720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약용작물 ‘백출’, 장마철 세균썩음병·역병 주의

### - 원인균 첫 확인... 초기에 병든 잎 제거, 이어짓기 피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약용작물 '백출'의 세균썩음병 원인이 토양 속 세균(슈도모나스 비리디플라바)임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과 관리법도 함께 소개했다.
- 백출(白朮)은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에 쓰이는 주요 한약재다. 농가에서는 수량이 많은 큰꽃삽주를 주로 재배한다.
- 큰꽃삽주(백주)의 세균썩음병과 역병은 피해 증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 세균(슈도모나스 비리디플라바)으로 전염되는 세균썩음병은 잎 가장자리나 상처에 일정하지 않은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병징이 나타난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뿌리까지 썩는다. 병원균은 빗물이 튀면서 잎 끝의 수공<sup>2)</sup>이나 기공, 상처를 통해 확산하므로 잎에 병이 발생한 경우 병든 잎은 초기에 바로 없애 줄기나 뿌리로 번지지 않게 한다.
- 역병은 곰팡이(파이토프소라 산소미나)에 의해 장마철 물이 오래 고인 밭에서 많이 나타난다.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고, 시듦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말라 죽게 된다. 이어짓기로 확산되므로 발병한 곳에서는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 장마철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 빠지는 길도 정비한다.
- 현재 세균썩음병 잠정 등록 약제로는 방제 효과가 좋은 발리다마이신에이 입상수화제 등 4품목이 있다. 역병에는 메타락실-엠수화제 등 4품목의 등록 농약과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등 5품목의 잠정 등록 농약이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가 일등 일꾼 '수정별'을 지켜주세요

### - 약제 뿌리기 전 그늘로 옮겨 놓고 '안전 방사 일수' 따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온실에서 활동하는 수정별(뒤영별)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 사용 요령을 제시했다.
- 노동력 부담은 덜고 작물 생산성과 소득 가치는 높일 수 있어 시설 온실 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약제 살포 전날 저녁, 벌통에 들어온 벌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그늘지고 안전한 곳으로 벌통을 이동시킨다. 약제에 따라 2~3일 후에 다시 벌통을 원위치에 옮겨 놓는다. 이 기간에는 벌통에 꽃가루 한 숟가락(500mg~1g/2일)을 공급해 봉세(벌의 세력)를 유지한다.
- 꽃 피기 전 약제 살포는 벌을 풀기 10일 전, 잔효성이 짧은 것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수정별(뒤영별)을 풀 때는 살충제는 물론, 온실 근처에 제초제도 뿌리지 않는다. 살충제는 잎이나 꽃가루, 꿀(꽃밀)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 농약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약제가 충분히 마른 다음 벌통 내의 벌을 안정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강진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온실 내부 기온이 오르는 고온기에는 수정별(뒤영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환기와 부분 차광 등 환경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라며, "온실에 약제를 뿌릴 때는 수정별 농약 안전 방사 일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 “조·기장도 기계로 심으세요”

### - 묘 기른 뒤 기계로 심으면 고르게 자라 속을 필요 없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조, 기장 등 소립 잡곡 재배 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기계로 심기에 알맞은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정식기계화 육묘 기술'을 소개했다.
- 소립 잡곡은 씨알이 작아 정밀하게 심기 어렵고, 싹 트는 비율도 낮아 다시 심는 일이 잦다.
- '정식기계화 육묘 기술'은 기존의 채소 정식기용 트레이(육묘상자)에 모판흙을 담아 씨를 뿌리고 모를 길러 기계로 심는 기술이다.
- 기계를 활용하면 빠르고 일정하게 심을 수 있으며, 속을 필요가 없어 노동력 부담도 적다.
- 조 '삼다찰'과 기장 '이백찰'을 실험한 결과, '수도용 경량'을 모판흙으로 활용해 6월 상순부터 하순께 심었을 때 가장 좋았다.
- 채소 정식기의 육묘 상자로는 128공(꽃아내기식), 220공(밀어내기식)이 적합했다.
- 수도용 모판흙의 주요성분 구성으로는 질석(40%~41%), 코코피트(12%~31%), 황토(15%~20%), 피트모스(6%~8%)이 좋다.
- 육묘를 키울 때, 128공은 15일, 220공은 20일이 알맞다. 키가 16cm~20cm 자랐을 때 기계로 심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태욱 생산기술개발과장은 "기계 육묘는 씨알을 뿌릴 때 문제인 조류나 잡초에 의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농촌 일손돕기 나서

#### - 장성 사과 유기재배 농가 열매숙기 작업 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소장 황인택)는 장성군 남면에 위치한 애플팜 사과 유기재배 농장에서 봄철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 전남 유일의 사과 유기재배 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재배 농법으로 재배하여 한마음공동체, 학교급식 등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 기적의 사과”로 불리고 있다.
- 이날 일손돕기에는 과수연구소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열매숙기와 웃자람가지 제거와 과수원 정리 등을 도왔다.
- 과수연구소 황인택 소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차세대 미래 축산 인재 양성

### - 전남대학교 재학생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미래 축산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우수 종축 개량, ICT 융합 스마트 축산 등의 주제로 이론강의 및 실습을 실시하였고, 현직 연구사들이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교육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3학년 김원의 학생은 “축산 현장 업무를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또한 교육생을 지도하는 김성학 전남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이 맞이할 미래는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과는 다른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며 “이에 따라 교육도 단편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정광욱 소장은 “학생들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축산현장을 경험하며 성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농축산업 재생에너지 도입해 수익 모델 개발

### - 전남도, 산업부 공모 선정돼 4년간 210억...에너지자립 실증사업 추진 -

-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서 농작물과 축산업 분야에 최종 선정돼 4년간 21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 및 수익 창출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은 농작물 재배와 축산에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를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활용해 대체하는 융합시스템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 광양시와 고흥군에서 진행하는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에너지 스마트팜 온실에서 최적의 환경 제어시스템, 드론 활용 열에너지 손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설원예 내 미활용 에너지(폐열)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을 추진한다.
- 순천시에서 진행되는 ‘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축산농가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축사 환경 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분뇨처리 순환시스템, 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전력거래 시스템 등을 개발해 실증한다.
- 이번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농가에 재생에너지시스템을 보급해 부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스마트팜과 축사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악취 등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롯데슈퍼,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맞손

### - 1천억 구매약정롯데 전용농장 조성 등 공동 마케팅 추진키로 -

- 전라남도과 롯데슈퍼가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식품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정철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강종현 롯데슈퍼 대표이사, 생산자를 대표한 정임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김농선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장, 김양길 전남축산단체협의회장, 조영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홍재희 선도임업인협의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롯데슈퍼는 전국에 456개 직영점이 있으며, 총 매출액 기준 슈퍼마켓 업계 1위 업체다.
- 전라남도와 롯데슈퍼는 농어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홍보마케팅, 청년 농부어부 육성과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는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생산가공해 공급하고, 롯데슈퍼는 전남산 농수축산물 1천억 원어치를 구매한다.

-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가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롯데슈퍼의 농수축산 전용농장 330만㎡(100만 평) 조성 및 상품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롯데슈퍼 점포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에 협력하고, 제철 농산물 수시 특판전을 개최하며, 온라인 쇼핑몰 ‘롯데프레시’에 남도장터와 남도미향 브랜드를 입점토록 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강종현 대표이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상생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명물과 특색있는 상품을 판매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생산자의 소득도 높여 전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록 도지사는 “농도 1번지 전남과 국내 슈퍼마켓 업계 1위 롯데슈퍼가 협약을 맺은 것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라며 “이는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길 바라는 농어민의 한결같은 희망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 두 기관 간 상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해지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전라남도는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및 직거래 장터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 - 올해 때 이른 폭염 잦은 집중호우 등 예보돼 경영 안정 위해 필요 -

- 전라남도가 올해 때 이른 폭염에 태풍과 국지성 호우등이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벼·콩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적극 나섰다.
- 전라남도는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전남지역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상회,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특히 도비 7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가입 요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ha(3천 평)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약 40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농민은 20%인 8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벼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이다. 콩은 1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참다래는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처럼 품목별로 각각 가입시기가 다르며 지역 농협에서 가입 시기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 벼 재해보험 보장은 주계약의 경우 태풍·우박·호우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특약은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대부분의 병해충 피해가 대상이다.

\*출처 : 전라남도



## 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

### - 퇴직 농산물 검사관 10명,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도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농관원’)은 농식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주관「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들은 고령이거나 영세한 양곡도정업주를 대상으로 쌀 표시사항 및 품위(등급)검사 방법 실습 교육, 양곡관리법령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등을 지도한다.
- “영세 양곡도정업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1년 사이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얻어,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기여했다는 외부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전문위원을 증원하고 활동지역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많은 영세 양곡도정업체를 지도할 계획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무안군, 공공부문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전개

- 양파 주산지 무안군(군수 김산)이 중만생종 양파 수확기를 맞아 산하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양파 소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가돕기에 나섰다.
- 올 해 양파생산은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다소 줄었지만, 기후와 강우량 등이 생육조건에 도움을 주어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15% 정도의 과잉생산이 예측되고 지난 3년간 저장양파가격이 불안정하여 유통인들이 양파 장기저장을 꺼리고 소규모 직거래로 돌아서고 있어 예년에 비해 포전거래도 끊어져 양파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 군은 금년 2월부터 발빠르게 양파소비촉진 및 판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 및 박람회 등 직거래, 전국 도매시장 중도매인 초청간담회, 그리고 관내 1,281개소 요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양파김치와 장아찌 등을 담가서 소비하도록 협조해왔으며, 매월 3,13,23,30일을 양파DAY로 정해 자체 소비운동을 펼쳐왔다.
- 또한, 지난달 5월 18일에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당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등 정부관계자들을 초청해 금년에 과잉 생산된 양파 시장격리와 정부수매대책을 건의 한 바있다.

\*출처 : 무안군

## 담양군, 고품질 딸기 수출 위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 담양군 최근 딸기 재배 및 수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진행해 참여 농업인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산물 수출에 관심 있는 농가를 사전에 조사해 실시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이다.
- 컨설팅은 딸기재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선정해 우량묘 생산을 위한 포장과 병·해충 방제, 국산 딸기 수출현황 및 국가별 수입시장 및 수출전략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수출 시 문제점과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다.
-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양은 올해 봉산면과 창평면에서 27톤, 2억 8천만 원의 딸기를 홍콩과 태국에 수출하며 국내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지역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

### -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통한 대숲맑은 담양 쌀 브랜드 가치 제고 -

- 담양군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의 품격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은 딸기 신품종을 자체개발해 담양 딸기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벼, 블루베리, 멜론 등의 품종개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2016년부터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의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진행한 실증시험 결과 선발된 우량계통 중 수량, 미질, 밥맛을 평가해 그 중 가장 우수한 1계통(담양1호)를 최종 선발했다.
- 선발된 담양 1호는 29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손모내기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4개 지역(담양, 나주, 전주, 익산)에서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21년 국립종자원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담양만의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명품상표 구축은 물론 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米에 味를 더해 쌀 소비 촉진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30일 ‘쌀 베이킹’ 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주민들의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또한, 식사 외에 쌀을 간식 등으로 활용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과, 제빵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참가자들은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우리 쌀을 이용해 쌀 케이크, 쌀 초코파이, 쌀 쿠키 등을 만들게 된다. 교육은 곡성 문화센터 요리교실에서 진행된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2018년에는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약 20% 감소한 61kg(2018년 기준)를 소비하는 데 그쳤다.
- 대신 밀가루, 육류 등의 섭취가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식문화가 바뀌면서 비만 등 국민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의 주식인 쌀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곡성군

## 고흥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25개 품종 모내기 실시

### -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농업인 교육장 활용 -

### - 병해충 조기에찰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여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6월 3일 농업기술센터 내 벼 시험재배 포장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을 위해 25개 품종에 대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 고흥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25개 품종 모내기 실시
- 벼 실증시험 재배 포장은 병해충 예찰 및 농가의 품종 비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남 적응품종인 새청무 등 25개 품종을 3,780㎡에 모내기 후 고흥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 벼 품종 선택의 기초자료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병해충 예찰답에는 방제구·무방제구를 구분 설치하고, 예찰기자재(도열병 포자채집기,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를 설치하여 신속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관측, 분석으로 농업인들에게 적기 방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고흥군에서는 고흥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역적응 품종을 선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녹차미인 보성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12년 연속 선정

- 보성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 녹차미인 보성 쌀은 지난 2006년부터 보성군에서 가장 벼 재배 환경이 적합한 장소를 엄선하여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우량종자 보급에서 부터 육묘·본답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가 GAP인증 등 품질 관리와 기술교육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 평당 주수도 70~75주를 심는 일반 쌀농사와는 달리 60주를 기본으로 심어 쌀의 품질을 높이고, 파종도 7~8kg인 관행 재배의 절반 수준인 4kg으로 제한하고 화학비료를 줄여 유기농으로 고품질 친환경 재배단지를 늘리고 있다.
- 특히, 쌀에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일반쌀(6~8%)보다 낮고, 완전미율도 95%이상으로 적기수확 및 최신식 저온 저장·건조·도정으로 연중 햅쌀의 맛을 유지시키고 있다.
- 보성녹차미인쌀은 급격한 품종 갱신보다는 안정적인 맛을 위해 12년간 호품종벼를 사용해 왔다. 호품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출처 : 보성군



## 보성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시행

### - 82개 마을, 영농철 점심 마을 공동급식으로 해결 -

- 보성군은 지난해 73개 운영하던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올해 9개 마을을 추가하여 82개로 확대 시행하면서 농번기 농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했으며, 연간 25일 범위에서 부식비와 인건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 한다.
- 특히,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가사와 농사일을 도맡아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홀로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의 식사까지 챙길 수 있어 농업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농번기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5월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한 보성읍 우산2 택촌마을 부녀회원들은 “서로 도와가며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바쁜 농번기에 마을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이 되었다.”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새청무'벼 해남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 - 올해 200ha 시범단지 조성, 땅끝햇살 골드 브랜드화 추진 -

- 해남군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새청무'벼를 해남 대표 브랜드쌀로 육성한다.
- 군은 황산농협과 공동으로 올해 관내 200ha 면적에 새청무 벼 시범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에 나서기로 했다.
-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새청무는 전남지역 재배여건에 알맞게 개발한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도복이나 병해충에 강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고품질의 우량품종으로 2020년 해남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시범단지에서 수확된 쌀은 해남군 공동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 골드'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 이번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과 함께 고품질 차별화를 통해 해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통합 브랜드를 통한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군은 새청무 벼 재배면적을 5,000ha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50여ha의 새청무벼 자체 채종포를 조성, 내년 희망 농가에 종자로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해남군



## 무안군, 스마트팜 선도농가 적극 육성

- 김산 무안군수는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격려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 소통에 따른 의견들을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난4일 군내 선도농가들을 현장 방문했다.
- 먼저 올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한 일로읍 최한심 구아바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 시설 및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재배경험, 판로확보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 김용남 농가는 올해 군으로부터 「첨단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각종 환경센서 및 제어 프로그램, 관비기 및 관수시설 등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농장관리 편리성 뿐아니라 정밀 비배관리를 통한 블루베리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해하였다.
- 김산 무안군수는 “선심성·홍보성 지원이 아닌 우리군 실정에 맞게, 또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계획이며, 스마트팜은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전부터 필요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농민들도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구아바와블루베리도 고소득 틈새작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올해 시설원에 스마트팜 설치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노지 양파 스마트팜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및 군비 6억 원을 투입하여 21농가 32ha에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무안군



## 장성군,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금이 적기’

### - 이달 4일~10일, 농경지 및 인근 산림 공동방제 실시 -

- 장성군이 과수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 ‘돌발해충’은 감,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수의 잎과 가지,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분비해 과일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마리당 150개의 알을 낳아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며,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발생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기방제가 더 요구된다.
- 이에 장성군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고 적기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군은 과수 돌발해충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벌, 곤충 등에 피해를 적게 주는 방제약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약제를 1,100여 농가에 제공했다. 또한 공동방제 기간 동안 마을 방송을 실시하여 과수 농가가 빠짐없이 자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 아울러 돌발해충이 인근 산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는 산림편백과와 협력하여 산림방제 작업에도 철저를 기한다.
- 군 관계자는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약제 살포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및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장성군



## 진도군, 농업(국화)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청소년의 인성 개발, 농심 배양, 정서 함양 기대돼 -

- 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일)는 2019. 6. 5. (수) 아리랑식물원에서 농업인대학 국화반 수강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고등학교(교장 신민식) 숲사랑동아리회와 농업(국화)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서 농업의 다양한 소재들이 청소년들의 인성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청소년들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고자 체결되었다.
-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고등학교 숲사랑동아리 회원(이하 숲사랑동아리) 20여 명이 매주 금요일 아리랑식물원 국화 하우스에서 직접 국화를 재배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숲사랑동아리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는 추후 ‘진도사랑국화작품 전시회’에 전시되며 진도고등학교 환경미화에도 이용될 계획이다.
-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숲사랑동아리에 국화 묘목 및 상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업인대학 국화반 수강생들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 및 과제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농심(農心)이 배양되어 농업 농촌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진도군(농업기술센터)



## 진도군, 벼 밀파묘 소식재배 연사회 열어

### - 육묘비용·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

-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6월 7일,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들녘에서 관내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밀파묘 소식재배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
- 이번 소식재배 이양연시는 평당 관행 이양주수 73~80주를 50주, 37주로 줄여 이양하는 2가지 유형을 선보였다.
- 벼 소식재배는 모판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육묘노력과 육묘비용 등을 절감 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로 벼씨파종량을 250~300g(관행 130~180g) 내외로 파종밀도를 높이고, 주당본수는 5~7주 내외로 하여 3.3㎡당 37~50주를 심는 방법으로 이양에 소요되는 모판 개수를 10a당 20~30판에서 10판내외로 약 1/3가량 줄일 수 있다.
- 소식재배기술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벼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육묘비용의 절감, 도복, 문고병 감소 등 이점이 있지만 균일파종 및 출아, 결주율 최소화 등에 소홀하게 되면 자칫 수량 및 품질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센터 실증포 및 농가 자체 현장실증시험을 통해 우리지역 주요 재배품종의 적정 파종량, 재식밀도, 이양시기 등을 비교분석 해 재배안전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촌 인력의 양적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식재배단지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 한편, 작물환경담당 관계자는“6~7월은 병해충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농업기술센터 도열병포자채집,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 예찰기자재를 통한 신속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으로 적기 방제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며, 벼 물바구미, 벼멸구, 애멸구, 흑명나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앙 전 모판상자처리제를 철저히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진도군(농업기술센터)



## 일본의 스마트 농업이 한국 수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농업 분야의 대부분에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중에도 최저치인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 농업 추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농업에 영향이 우려된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과 함께 초기 투자 및 운영비가 높아 일반 농업인에게는 재배하기 어려운 품목이었음에 따라 대부분을 한국,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기업의 농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형 온실을 갖추고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여 파프리카 생산의 고효율화가 시작되었으며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일본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보합 추세이나 수확량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당 수확량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파프리카 생산 현황〉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재배면적(ha)	52	57	56
수확량(t)	3,483	3,526	4,174
10a당 수확량(t)	6.7	6.2	7.5

※ 자료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 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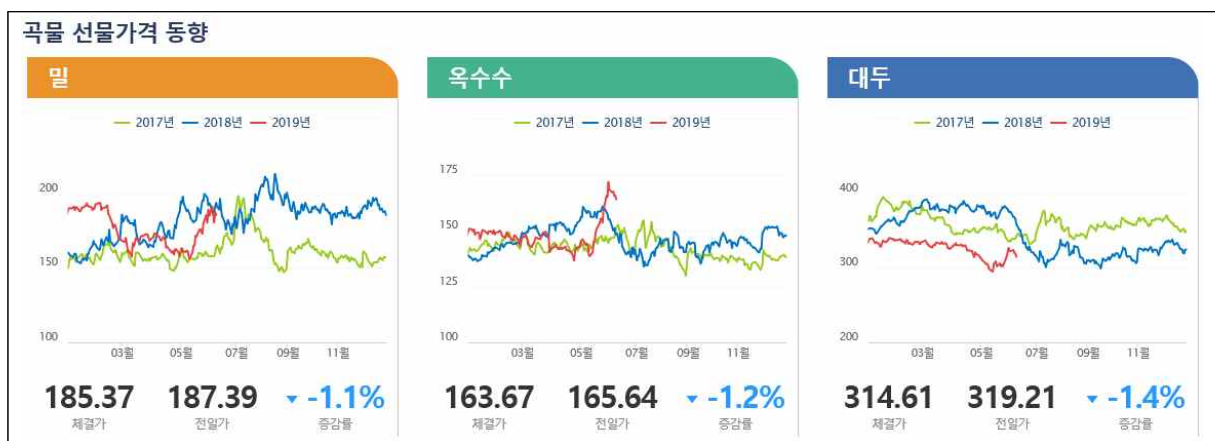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공급량은 약 30,000~31,000톤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으나 일본의 파프리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래에는 파프리카 수입량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일본의 베지드림쿠리하라(도요타 통상 그룹), 리치필드미호(도큐 건설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파프리카 생산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국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농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본 수출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국내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서는 일본산 파프리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10. 시카고 선물거래소)

### - 대두 선물가격, 중서부 지역의 날씨 개선으로 한 달 만에 주간 첫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 러시아에 비가 오지 않아 세계 최고 곡물 수출국들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2%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이번 주 수출 부진 소식이 전해진 후 하락세를 보였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밀과 옥수수 시장의 압력과 미국 중서부 일부 지역이 좀 더 좋은 파종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한 압력 속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주간 계약이 감소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홍보에서는 업무계획, 분야별 정책, 정책자료, 디지털도서관, 청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업무계획은 2019, 2018, 2017년도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정책에서는 농촌, 농업, 식량, 국제, 축산, 농생명, 유통, 식품, 방역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분야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귀농귀촌,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 식량분야에서는 쌀 목표가격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 국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말산업육성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개량지원 등
- 정책자료는 등록일자와 주제어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국민소통' (Citizen Communication), '알림소식' (Notice), '정책홍보' (Policy Promotion), and '농식품부 소개' (Introduction of MAFRA). A central banner features a winter scene with trees and text about supporting agricultural disaster relief.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보도자료' (Press Release), '새소식' (New News), and '맞춤 정책정보' (Custom Policy Information). The '맞춤 정책정보' section includ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policy information categories.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연구원소개,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연구정보에서는 연구보고서, 학술지(농촌경제), 세미나·토론회 자료, 농정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림어업고용동향분석, 농정동향,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관측정보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매월 제공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 임업관측은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 조경수의 단기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발표
  - 농정동향은 KREI 논단,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농정소식을 확인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KREI logo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featured reports and news items, including a large article about the 2018 Rural Policy Conference, a report on the 2018 Rural Policy Conference, and a report on the 2018 Rural Policy Conference. The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links to various sections like 'Research Information', 'Observation & Trend', 'Global Information', 'Open Market', 'Researcher Introdu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 청렴한세상 - 사료에 불순물을 섞어 판매한 공익침해행위







이처럼 최근 사료값 급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잇다르고 있으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주간 전남농업

VOL. 237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